



# 외국인 불법 진료 ‘덜미’... 탈세 의혹도

### 제주지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첫 적발 대표원장·이사·중국인 브로커 등 불구속 기소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향후에도 엄정 대응”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진료한 제주 도 내 의료기관 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도내 의료 개설자에 대한 의료해외진출법(2016년 6월 23일 시행) 위반 혐의로 첫 적발된 사례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48)씨와 경영이사 B(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현재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20일까지 1년 여간 중국인 C씨와 현재 중국으로 달아난 D씨(42)와 공모해 진료비 가운데 10~15%를 수수료로 주고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 받아 진

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B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국인 C·D씨에게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로 1억18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 1250만 원을 이들에게 지급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지난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다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6억6000만원 상당을 받는 등 미자적 유치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의원이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은 점을 감안, 탈세 가능성도 파악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무등록 유치업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금 수납을 유도했고,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현금 진료비를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

시키는 등 탈세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무등록 관광업자들에 의해 도내 피부과·성형외과를 위주로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 등 의료질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에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백금탁기자



무말랭이 만들기 작업 8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한 영농조합에서 수확한 무로 만든 무말랭이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강희만기자

# 지난해 화재사고 크게 늘며 피해 막대

### 600건 발생... 사상자 33명·재산피해액 95억 넘어 2019~2023년 최근 5년 사상자 155명·피해액 328억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전년 대비 급증하며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600건이며, 이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33명(사망 5, 부상 28), 재산피해는 95억1100만원(부동산 35억8200만원, 동산 59억29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3년 화재발생건수 556건, 인명피해 30명(사망 3, 부상 27), 재산피해 59억6000만원(부동산 24억

3300만원, 동산 35억2700만원)에 견줘 44건(7.9%), 3명(6.6%), 35억5100만원(59.6%) 급증한 수치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늘었고 재산피해도 막대했다.

지난해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야외도로 142건(23.7%), 주거시설 119건(19.8%), 산업시설 99건(16.5%), 차량 78건(13.0%), 생활서비스 59건(9.8%), 판매업무시설 40건(6.7%) 등의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207건(34.5%)과 203건(33.8%)으로 비중이 컸고 기계적 요인도 40건

(6.7%)으로 적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834건, 인명피해 155명(사망 27, 부상 128), 재산피해 328억300만원(부동산 112억8500만원, 동산 215억1800만원)이다.

이 기간에 평균 화재발생건수는 569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31명(사망 5.4, 부상 25.6), 재산피해는 65억6000만원(부동산 22억5700만원, 동산 43억300만원)이다. 2022년에 화재발생건수와 인명피해 규모가 612건과 41명(사망 6, 부상 35)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피해도 121억4600만원(부동산 28억1700만원, 동산 93억29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금탁기자

## 불법조업 특별단속 중국어선 3척 나포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A호 등 범장망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400t·승선원 15명)는 지난 3일 오후 5시49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6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1230kg 상당의 어획물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B호(400t·승선원 14명)는 지난 6일 오전 6시40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C호(300t·승선원 14명)는 지난 6일 오전 8시4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40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 등 어획물 50kg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작년 제주지역 차량등록 증가세 주춤 경기침체 영향... 12월 말 기업민원 제외 41만3299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2024년 제주지역 등록차량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 등록차량은 전년 말 대비 1만2154대 늘어난 71만5445대로 승용차 60만4307대, 승합차 1만6811대, 화물차 9만1789대, 특수차 2541대 등이다. 용도별로는 자가용 43만172대, 영업용 28만2798대이다.

이중 제주에 등록된 하고 다른 지방에서 운영하는 기업민원 차량 30만2146대를 제외할 경우 실제 도내 운행 등록차량은 41만3299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말 기준 41만1860대보다 1439대가 늘어난 것으로 전년도 증가분 2270대의 63% 수준에 머물렀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은 16만8503대로 전년도 말 16만7043대보다 1460대가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전기차도 3103대가 늘어난 3만9524대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차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이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량은 2만212대로 전년도보다 4286대나 폭증했다. 이밖에 수소차는 2023년 말 27대에서 64대로 갑절 이상 늘었다. 반면 경유는 전년도보다 6026대가 줄어든 15만3644대, LPG차량도 1434대가 감소하면서 3만576대로 나타났다.

기업민원 차량을 제외한 도내 등록차량이 소폭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비사업용 차량 구입 증가가 300여대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영석기자

## “더 안전하게”... 학교 안전업무 통합 관리

###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무석면 학교 실현 등 목표

올해 제주 학교 현장의 안전업무가 통합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교육부의 학교안

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과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포함해 수립했다.

중점 사항을 보면 새롭게 구축된 학교 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 안전지원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그동안 각기 운영되던 11개의 학교안전 업무 시스템을 일원화해 학교안전 업무를 종합·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게 된다.

학교는 ‘학교 안전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건별 안전관리·교육방안 등을 제안받아,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 올해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을 완료해 무석면 학교를 실현하고 유치원·특수학교·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건물 내진 보강 진행률은 현재 96.4%로 2029학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령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ITA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리체육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층)